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장에는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과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법 그리고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나실인의 법과 제사장의 축복이 있고 7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이 완성되었던 둘째 해 1월1일부터 드린 예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여호와의 회막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5장부터 8장에는 다양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연결 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말로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다가 올려졌을 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단6:23)'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아멘'하는 것도 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 분을 의지하며 충성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장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하고 신앙해야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간에 의심이나 불신으로 인해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신뢰가 깨어질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 간에 죄를 범하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입힌 부분은 온전히 갚아야 했습니다. 만일 죄 값을 받을 피해 당사자나 친척이 없으면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서 어떤 식으로든 그 죄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동시에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할 속죄의 숫양도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간에도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에게 가서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의심이 생기면 서로 사랑할 수 없고 결국에는 그 가정도 깨어지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부부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살아 가야 할 것입니다.

6장에서는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의미는 '바치다' '헌신하다' '구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혹시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이해하여 '나실 때부터 바쳐진 사람'이라고 오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자신을 몇 날, 몇 주 혹은 몇 달 아니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이 제사장과 구별되는 것은 나실인은 레위인이 아니어도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가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처럼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 3가지를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혼 즉 내적인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외적인 치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적인 것을 치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이나 일상의 삶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죽은 사람들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죽은 사람들(마8:22, 눅9:60 참조)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평생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바쳐진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나게 된 삼손(삿13:3-5)과 사무엘(삼상1:11), 그리고 레

갑 자손(렘35:6-10)들이 나실인의 서원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5장과 6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개인 자신과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작용에 대한 말씀이라면 7장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각자의 헌물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12일 동안 예물을 드린 순서는 앞서 민수기 2장에서 말씀 드린 이스라엘의 각 진영이 진행하는 순서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헌물을 드린 첫날은 성막이 완성 된 날 즉 애굽을 떠난 지 2년 째 되는 해의 새해 첫날인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대표하여 12일 동안 헌물을 드리고 난 후 13일째에는 레위인들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회막에 들어가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레위인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뢰'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신뢰하며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도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으며 독생자 예수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사랑이고 그 사랑에 바탕을 둔 믿음으로부터 충성과 헌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리라 결단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 기쁨과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